

도박의 늪에 빠진 삼성...골든타임 흘러 보냈다

삼성, 해외원정도박 사태 무대응 논란

무죄 추정 원칙 고수...입장 표명 회피
연루 선수 명단 확산 갈수록 여론 악화
뒤늦은 공개 사과...빠른 대처 아쉬워

삼성 야구단은 그동안 삼성그룹의 초일류 이미지를 강화하는 도구로 기능했다. 2011시즌부터 한국시리즈 4년, 정규시즌 5년 연속 우승의 위업을 쌓는 동안 삼성 야구단은 놀랍게도 외부의 적을 거의 만들지 않았다. 적재적소의 전력보강, 효율적 투자, 육성, 재활, 프런트와 현장의 소통, 장기 팀 플랜 등 삼성 야구단의 시스템은 곧 1등 삼성의 이미지 그 자체였다.

이렇게 강력하고 평화로운 삼성의 '한국야구 지배'가 의외의 지점에서 균열을 일으키고 있다. 삼성 주축선수 몇몇이 해외원정도박에 연루됐다는 혐의가 불거졌고, 검찰과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한국시리즈(KS)를 앞두고 터진 악재에 삼성 야구단은 물론 삼성그룹까지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여기서 의아한 점은 삼성의 대응이다. 의혹이 제기된 이후 여태껏 삼성 야구단과 삼성그룹의 대처는 20일 저녁 입장 발표 때까지 한마디로 '무(無)대응'이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양, KS 대비 훈련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여론은 삼성의 생각대로 흐르지 않았다. 삼성은 '소환도 되지 않았는데 혐의만으로 선수들을 KS 엔트리에서 제외하면 수사도 이뤄지기 전에 그 선수들을 노출시키는 것'이라는 명분을 내세웠는데,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삼성'의 정보력이라면 이미 사건의 진상 파악이 끝났을 것이다. 만약 사실로 밝혀질 일이라면 선제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삼성그룹의 신뢰도 손상을 최소화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이 침묵하는 사이, 대형 포털 사이트에 삼성 라이온즈를 검색하면 '도박'이 연관 검색어로 가장 많이 노출됐다. 도박 의혹을 사고 있는 선수의 이름이 사방으로 퍼져나갔고, 기정사실화됐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했을 때, 삼성그룹의 지침을 따라야 할 야구단 프런트가 할 수 있



프로야구를 휩쓴 '해외원정도박' 스캔들에도 삼성은 무대응으로 일관하다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먼저 사과하는 등 선제적 대응이 필요했다. 삼성 선수들이 20일 대구구장에서 한국시리즈에 대비한 훈련을 하고 있다.

대구 | 김진환 기자 kwangshin00@donga.com

는 수단은 별로 없었는지 모른다. 무죄 추정의 원칙을 고려할 때, 혐의만으로 KS 엔트리에의 조치를 결정하는 것이 가혹할 수도 있다. 그러나 완벽하게 결백하다고 자신하지 않는 한, 적어도 삼성 야구단 차원에서 야구계를 뒤흔들게 만든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한 사과는 해야 한다는 지적이었다. 일단 구단 자체적으로 1차적 입장 정리를 분명히 하고, 수사 결론에 따라 2차적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삼성이 어떤 일인지 이번 건에 대해선 골든타임을 흘려보냈다'는 야구계의 지적이 허투루 들리지 않는다. 김경호 기자 gatzby@donga.com

류중일 감독 "선수들이 꼭 무혐의 받았으면..."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애써 야구와 관계없는 얘기를 나누다가도, 삼성 류중일(52) 감독의 얼굴은 드문드문 굳어졌다. 분위기를 밝게 바꿔보려 했지만, 착잡한 심정은 감출 수 없었다.

류 감독은 20일 대구구장에서 진행된 한국시리즈 대비 자체 정복전에 앞서 "이제는 (해외원정도박) 의혹을 받고 있는 선수들을 데리고 한국시리즈에 가도 문제, 안 가도 문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류 감독은 이날도 아침 일찍 일어나 숙소인 인터볼호텔 주변을 산책했다. 머리 속에 해답이 없는 질문이 산적해있다. '최근 잠을 잘 못 잔 게 아니냐'는 얘기에 너털웃음을 지으며 "잠을 잘 잤을 리가 없지 않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한창 한국시리즈를 준비하는 와중에 터져나온 해외원정도박 스캔들. 어느 하나 귀중하지 않은 선수는 없지만, 사건에 연루된 두 선수가 하필이면 마운드의 핵심 전력이다. 류 감독은 "왜 하필 이런 시기에 이렇게 안 좋은 일

이 터졌는지 안타깝기만 하다. 이미 선수단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다"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감독이 된 이후 늘어난 건 술밖에 없다"고 농담을 해보던 류 감독은 얼마 후 누군가에게서 걸려온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이어 감내한 투수코치를 급히 불러 무언가를 상의했다. 결국 이날 정복전에 청팀 선발로 등판할 예정이던 투수가 갑작스레 왕왕삼삼으로 바뀌었다. 해외원정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투수였다. 류 감독은 그저 "사건에 연루된 선수들이 꼭 무혐의로 판결됐으면 좋겠다"고 바랐다.

대구 | 배영은 기자 yeb@donga.com

NC 김경문 감독 3차전 타순 변화

나성범 전방·이종욱 후방 배치 예고

NC 김경문 감독이 플레이오프(PO) 3차전 타순에 칼을 든다.

김 감독은 20일 마산구장에서 팀 훈련을 실시하며 "2차전에서 의미 있는 승을 거뒀지만 타선은 바뀌어야 할 것 같다. 단기전은 머뭇거리 틈이 없다. (이)종욱이가 아직 컨디션이 좋지 않아 보인다. 잘 맞은 타구가 상대 시프트에 걸리는 등 운도 안 따르고 있다. 뒤로 빼서 편하게 해주고 싶다"고 말했다.

김 감독은 19일 2차전에서 0-7로 완패한 1차전과 동일한 선발라인업을 들고 나왔다. "정규시즌에 잘해줬던 선수들이다. 믿고 간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특유의 폭심은 통했다. NC는 2-1 역전승을 거두고 시리즈 전적을 1승1패로 맞췄다. 그러나 타선은 여전히 부진했다. 2차전 승리는 페이크번트&슬래시, 런&히트, 스쿼즈번트 등 '작전'으로 일군 것이었다. 벤치가 움직여 성공을 거뒀지만, 김 감독은 "선수들이 잘해서 이기는 야구"를 바라고 있다. 단, 공격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최적의 타순을 고민하고 있다.

21일 3차전에선 나성범이 전방으로, 이종욱이 후방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 나성범은 올해 3번, 5번 타순을 막론하고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타순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의 불배합 때문에 고민이 많았다. 5번타자로 나선 PO 1·2차전에서 안타를 하나도 치지 못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나성범은 "(예략) 테임즈가 뒤에 있을 때는 (상대가) 정면 승부를 많이 하는 편이었는데, 5번에선 유인구가 많아지더라"며 "5번에선 좀더 신중하려고 했는데, 생각만큼 잘 안 됐다"고 털어놓았다. 이종욱도 "3번이어서 부담되는 건 아니네, 자꾸 내가 공격 흐름을 끊어서 답답했다"며 "어차피 야구는 결과로 말하는 것이다. 핑계대지 않았다. 타순 변경은 당연한 일"이라며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마산 | 홍재현 기자 hong927@donga.com

손민한 vs 유희관 컨트롤 대결...누가 존을 지배할까

■ PO 3차전 관전 포인트

둘 다 속도보다 타이밍으로 승부
구심 스트라이크존 적응이 관건

#NC 손민한(40)은 통산 123승(88패22세이브)을 올린 대투수다. 올해 페넌트레이스에서도 11승(6패)을 올렸다. 그러나 포스트시즌 성적은 의외로 매우 평범하다. 지난해를 포함해 고작 12경기에서 23이닝을 던졌다. 1승2패, 방어율 4.70으로 인상적이지 못했다. 그는 롯데가 전력이 약했던 시절 전성기를 보내 포스트시즌 경험 자체가 많지 않았지만, 전국의 에이스로 불렸던 2008년 준플레이오프(준PO)에 선발등판해서도 4.2이닝 만에 홀런 1개를 포함해 5안타 2실점했다. 그날 경기에서 롯데는 패했다. 손민한도 젊은 시절 강속구 투수로 이름을 날렸지만, 전성기에는 정교한 컨트롤과 영리한 두뇌싸움으로

승리를 쌓았다. 21일 잠실구장에서 열릴 두산과의 PO 3차전에서도 제구력으로 승부를 걸 전망이다.

#두산 유희관(29)은 삼삼을 파괴하고 있는 주인공이다. 시속 130km의 공으로 올 시즌 18승(5패)을 챙겼다. 둥글둥글한 몸으로 느리지만 구석구석을 찌르는 공을 던진다. KIA 서재응이 메이저리그 시절 얻은 자랑스러운 별명 '컨트롤 아티스트'를 유희관이 계승하고 있다. 2013년 포스트시즌 때는 두산이 준PO부터 한국시리즈까지 올라가는 여정에 큰 힘을 보탤었다. 그러나 올해 넥센과의 준PO 3차전에선 4이닝 동안 92개의 공을 던지고 3실점해 패전을 떠안았다.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날 4이닝 동안 불넷 4개를 허용한 점이다. 유희관은 정규시즌 때 189.2이닝 동안 불과 44개의 불넷만 내준 투수다.

KBO에선 매년 포스트시즌 때면 구심의 스트라이크존이 정규시즌과 비교해 매우 엄격해지는 경향이 있다. 많은 투수들이 "(정

규)시즌과 비교하면 굉장히 좁게 느껴진다"고 말한다. 준PO 3차전 때도 유희관은 자신 있게 던진 공이 볼로 판정될 때마다 매우 아쉬워했다.

21일 3차전은 야구는 '속도가 아닌 타이밍이다'를 온 몸으로 실천하는 두 투수의 선발 맞대결로 관심을 모은다.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과연 두 투수가 얼마나 빨리 구심의 스트라이크존에 적응하느냐. 최고의 베테랑과 영리한 투수지만, 자신의 코스를 잊어버리면 투구수가 많아지고 난타를 당할 수 있다.

손민한은 올해 두산을 상대로 피안타율 0.295, 방어율 4.81로 좋지 않았다. 두산 김현수가 12타수 6안타로 강했고, 홍성흔도 8타수 3안타를 쳤다. 잠실구장 성적은 4경기 1승1패, 방어율 4.24다. 유희관은 NC를 상대로 피안타율 0.257, 방어율 2.84로 견고했다. 유희관의 잠실구장 방어율은 3.14로 시즌 전체 방어율 3.94보다 크게 낮다.

이정호 기자 rush@donga.com

PO 3차전 선발투수 비교					
손민한 (NC)			유희관 (두산)		
시즌 성적	상대 성적	구분	상대 성적	시즌 성적	
26	5	경기수	3	30	
11-6-0	2-2-0	승-패-세	2-1-0	18-5-0	
105.0	24.1	이닝	19.0	189.2	
65(57)	13(13)	실점(자책)	6(6)	84(83)	
4.89	4.81	방어율	2.84	3.94	
50	8	탈삼진	9	126	
20	6	4사구	9	48	
8	2	피홈런	3	23	
1.30	1.32	WHIP	1.47	1.25	
0.295	0.295	피안타율(전체)	0.257	0.269	
0.275	0.317	피안타율(피타자)	0.279	0.261	
0.309	0.278	피안타율(우타자)	0.226	0.273	

토론토, 반격의 1승

홈런만 3방...ALCS 3차전 승리
쿠에토, 2이닝 8실점 패전 멩에

토론토가 또다시 3차전을 승리로 장식했다. 텍사스와의 디비전시리즈에서 2연패를 당한 뒤 3차전을 잡아낸 뒤 여세를 몰아 리버스 스윕에 성공했던 바 있어 매우 의미 있는 승리다.

20일(한국시간) 로저스 센터는 축제 분위기였다. 캔자스시티에서 2연패를 당하고 돌아온 선수들에게 4만9000여 홈팬들은 광적

아메리칸리그 챔피언십시리즈 3차전 (20일·로저스 센터)												
캔자스시티												
1	0	1	0	2	0	0	0	4	8	15	0	
1	2	3	4	5	6	7	8	9	R	H	E	
0	3	6	0	1	0	0	1	X	11	11	0	
토론토												
승: 마커스 스트로먼						패: 자니 쿠에토						

인 응원을 보냈다. 두 팀이 장단 26안타를 폭죽처럼 터뜨리는 난타전을 펼쳤고, 승리는 홈런포 3방을 쏘아 올린 토론토의 묄이였다. 캔자스시틀을 11-8로 제압한 토론토는

아메리칸리그 챔피언십시리즈(ALCS·7전 4승제) 첫 승(2패)을 신고하며 뒤집기의 꿈을 키웠다.

토론토가 3-2로 앞선 3회말, 트로이 톨로워츠키가 캔자스시티 에이스 조니 쿠에토를 상대로 중월3점홈런을 때었다. 이 홈런은 빅이닝을 알리는 전주곡이었다. 유력한 아메리칸리그 최우수선수(MVP) 후보인 조시 도널드슨도 구원투수 크리스 매들렌을 상대로 비거리 140m의 초대형 좌월2점아치를 그렸다. 도널드슨의 올 포스트시즌 3번째 홈런으로, 1992년 조 카터와 캔디 말도나도, 1993년 폴 몰리타가 작성한 토론토의 단일 포스트시즌 최다홈런과 타이기록이다. 포스

트시즌에서 부진을 면치 못하던 라이언 고인스마저 9-4로 앞선 5회말 매들렌을 상대로 우월솔로홈런을 뽑아 홈팬들을 열광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반면 쿠에토는 최악의 피칭을 했다. 15일 휴스턴과의 디비전시리즈 5차전에서 8이닝 2실점으로 승리투수가 됐지만, 토론토의 강타선은 차원이 달랐다. 3회에는 아웃카운트를 한개도 잡지 못한 채 마운드를 내려야 했다. 2이닝 6안타 4볼넷 8실점으로 캔자스시틀 투수 중 포스트시즌 최다실점의 불명예를 떠안았다.

손건영 스포츠동아 미국 통신원

편집 | 고창일 기자 ico@donga.com